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6, pp.241-274  
<https://doi.org/10.29212/mh.2025..136.2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코르부스의 유효성에 대한 전략적 평가

김상엽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 목 차
- I. 서론
  - II. 코르부스의 역사적·전략적 배경
  - III. 코르부스의 기원과 설계
  - IV. 코르부스의 운용과 전술적 영향
  - V. 코르부스의 전략적 결과와 유산
  - VI. 결론

**초 록**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코르부스의 활용은 기술 혁신이 군사 전략, 작전 효율성, 장기적인 전력 발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코르부스는 절대적인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닌 과도기적 기술로서, 단기적으로는 로마의 해상 전력 열세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선박 기동성 저하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르부스는 로마 해군이 부상하던 시기에 전력 증폭기로 기능하며, 로마 보병의 강점을 해전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만든 전략적 도구였다. 이는 해상 강국 카르타고와의 전력 격차를 줄이고, 초기 전투에서 로마의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코르부스의 설계는 함선의 안정성을 해치고 기동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이나 적의 전술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손

실은 로마의 회복력과 제도적 대응 능력을 시험했다. 이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코르부스의 사례는 기술에 대한 일시적 의존이 기반 전력의 균형적 발전 없이 지속되면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은 작전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 학습 역량, 그리고 전략적 통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로마는 코르부스를 일시적으로 적극 활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해군 선원들의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전통적인 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기술에 의존한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양 작전 역량의 확보가 장기적 우위에 핵심적임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코르부스는 이처럼 군사 혁신이 일시적 승리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조직이 성숙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으로 볼 때 코르부스는 단순한 장비가 아닌, 로마의 전쟁 수행 방식과 군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육상 전술을 해상에 접목시킴으로써 로마는 전통적 전쟁 영역 간 경계를 허물었고, 다양한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입증했다. 이는 코르부스가 비대칭적 도전에 직면한 로마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찰은 고대 전쟁사에 그치지 않고 현대 군사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군대 역시 기술 도입의 효과적 방식, 단일 솔루션 의존 회피, 핵심 역량과 혁신 간 균형 유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코르부스 사례는 혁신이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적응의 과정임을 보여주며, 전략적 사고와 평가 없이는 기술이 오히려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주제어(Keywords) : 로마,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 코르부스, 지중해, 밀라이, 에크노모스

## I. 서론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241년)은 고대 군사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며,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100년에 걸친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sup>1)</sup> 당시 로마는 주로 육상 군사력에 의존해 왔으며 해전 경험이 거의 없는 반면, 카르타고는 강력한 해양 전통과 정예 함대를 보유한 지중해 서부의 대표적인 해양 강국이었다.<sup>2)</sup>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로마는 낯선 해상 전장에서 숙련된 적과 맞서야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주목할 만한 전술적 혁신 중 하나가 바로 ‘코르부스(corvus: 까마귀 장치)’의 발명이었다.<sup>3)</sup> 코르부스는 로마의 강점인 육상 백병전 능력을 해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탑승 장치로, 당시 해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장치는 일종의 회전식 다리로, 끝부분에 갈고리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적함에 박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로마 병사들은 적함에 탑승하여 육상전 방식으로 교전할 수 있었다.<sup>4)</sup>

고대 사료들은 코르부스를 기발하고 대담한 군사 기술로 평가하였으며, 이 장치는 이후 로마의 높은 적응력과 전술적 창의성

1) Polybius, *Histories*, 1,20-22.

2) B. H. Warmington, *Carthage* (London: Robert Hale, 1960), pp.24-30.

3) R. Miles, *Carthage Must Be Destroyed: The Rise and Fall of an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London, New York: Allen Lane, 2010), pp.72-75.

4) A.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The Punic Wars 265-146 BC* (London: Cassell, 2003), pp.106-126; B. D. Hoyos, *A Companion to the Punic Wars* (Blackwell, 2015), pp.153-155.

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전술적·전략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sup>5)</sup> 코르부스는 로마가 카르타고의 숙련된 항해술을 모방하기보다, 오히려 육상전 방식의 백병전을 해상에 적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였다.<sup>6)</sup> 이러한 전술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로마는 기원전 260년 밀라이(Mylae)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어서 술키(Sulci) 해전과 에크노무스(Ecnomos) 해전에서도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적어도 전쟁 초기에는 코르부스가 로마가 해상 전투 경험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였음을 보여준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성공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했으며, 상당한 대가를 수반한 것이었다.<sup>8)</sup> 폴리비우스(Polybius)는 코르부스가 로마 함선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며, 이 장치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음을 시사한다.<sup>9)</sup> 실제로 코르부스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지나치게 높여 항해 중 조작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특히 파도가 거센 해상에서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였다.<sup>10)</sup> 기원전 255년과 253년, 로마 함대는 연이은 폭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코르부스의 무겁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목한다. 전쟁의 후반기에 이르러 고대 문헌에서 코르부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점은, 이 장치가 결국 실용성을 상실하고 폐기되었음을

5) J. F. Lazenby, *The First Punic War: A Military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68-70.

6) Polybius, *Histories*, 1,25.

7)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pp.113-114.

8) Polybius, *Histories*, 1,27-30.

9) Polybius, *Histories*, 1,50-51.

10)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p.121.

시사한다.<sup>11)</sup>

코르부스는 과연 일시적으로는 기발한 해결책이였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약점을 드러낸 결함 있는 혁신이였는가?<sup>12)</sup> 이 문제는 현재 역사학적 논쟁의 핵심이다.<sup>13)</sup> 첫 번째 관점은 빅토르(Aulelius Victor)와 폴리비우스를 위시로 한 고대 역사가들의 논점으로 코르부스의 기술 혁신성에 주목하여 코르부스를 전쟁의 결정적 승리 요인으로 보는 **전통적 승리주의 해석**이다.<sup>14)</sup> 반면 두 번째 관점은 존 라젠비(John Lazenby)와 텍스터 호요스(Dexter Hoyos) 등을 비롯한 현대 학자들의 논점으로 코르부스가 단기적으로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르부스가 실제로는 전함의 항해 성능을 저하시켰으며, 드레파나 해전에서의 로마의 패배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현대적 수정주의 시각**이다.<sup>15)</sup> 더욱이, 고고학적

11)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124-125; W. W. Tarn, "Fleets of The First Punic War,"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8(1907), p.24; J. H.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1946), p.180. 전투에서 코르부스의 장점에 대해 동의하는 반면, 코르부스가 로마의 5단 노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첫째로 C. Rorres and H. G. Harris, "A Formidable War Machin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rchimedes' Iron Hand," *Symposium on Extraordinary Machines and Structures in Antiquity*, Greece, Olympia(2013), p.6. 에서 고대 지중해의 전함들이 코르부스보다 무거운 장비를 적재하였음을 묘사하였고 둘째로 Polybius, *Histories*, 1.37과 1.54의 기사를 살펴보면 로마 함선의 난파 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적인 결함이 인간의 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12) B. D. Hoyos, *Mastering the West: Rome and Carthage at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110-115.

13) Polybius, *Histories*, 1.35.

14) 전통적 승리주의적 해석은 코르부스의 기술적 혁신성(Annaeus Florus, *Epitome of Roman History*, 1.18.9; Aurelius Victor, *De Viris Illustribus*, 38.1; Polybius, *Histories*, 1.23) 해상 전투를 육상 전투로 변형시킨 점(Polybius, *Histories*, 1.23), 카르타고 전함을 쉽게 포획할 수 있게 한 점(Orosius, *Historiae Adversum Paganos*, 4.7.10; Polybius, *Histories*, 1.47) 카르타고의 뛰어난 항해 기술을 무기력화한 점(Polybius, *Histories*, 1.28) 등을 강조하였다.

증거의 부재와 문헌 사료의 희소성은 코르부스가 제1차 포에니 전쟁 전체 기간 동안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sup>16)</sup> 또한 이 장치를 단순한 전술적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 그보다 넓은 전략적 함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르부스는 로마 군사 혁신의 상징인 동시에, 낯선 전쟁 양식에 대한 로마 사회의 적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sup>17)</sup> 로마의 코르부스 운용은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해상전의 규칙을 자국의 강점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전술적 혁신은 한편으로 로마의 해군 운용 기술 습득을 지연시키고, 해상전에서도 육상 기반의 전투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코르부스는 단기적 전술 효과뿐만 아니라, 로마 해군 전략의 발전과 고대 군사사적 사고에 미친 장기적 영향까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코르부스를 기술적 특성, 실전 운용, 주요 해전에서 의 영향, 그리고 로마 전략의 진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도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코르부스를 단순한 창의성의 상징

15) 현대적 수정주의 시각은 코르부스의 탑재로 인한 5단 노선의 불안정성(Tarn, "Fleets of The First Punic War," p.24;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180)과 코르부스를 무기력화할 수 있는 카르타고의 신무기 개발(De Saint-Denis, Emille, "Une Machine De Guerre Maritime: Le Corbeau De Duilius," *Latomus* 5(1946), p.366; G. De Sanctis, *L'et Delle Guerre Puniche* (Milan: Milano-Torino, 1916), p.180; H. T. Wallinga, *The Boarding-bridge of the Romans: Its Construction and Its Function in the Naval Tactics of the First Punic War* (Groningen: J. B. Wolters, 1956), p.81) 등을 지적하였다.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140-145; Hoyos, *A Companion to the Punic Wars*, pp.98-100. Polybius, *Histories*, 1.50;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4.7.

16) Hoyos, *A Companion to the Punic Wars*, pp.98-100.

17) Goldsworthy, *The Punic Wars*, pp.75-78.

18)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125-130.

으로 보지 않고, 적응적이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닌 논쟁적 고대 군사 혁신의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코르부스를 전술적 즉흥성과 전략적 전환이 맞물리는 고대 군사 적응의 한 사례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 II. 코르부스의 역사적 · 전략적 배경

제1차 포에니 전쟁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질서를 바꾼 중대한 전환점으로, 신흥 강국 로마와 해상 강국 카르타고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충돌한 전쟁이었다. 두 나라는 정치 체제, 군사 전통, 전략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전략적으로 핵심 요충지였던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섰다.<sup>19)</sup> 이 장에서는 전쟁의 발발 배경을 역사적 · 전

19)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육군 강국 로마와 해군 강국 카르타고가 맞붙은 지중해 패권 전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로마가 해군력까지 확보하면서 지중해 세계의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전쟁이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 대한 개요는 다음의 표로 설명할 수 있다.

구분	로마 (Rome)	카르타고 (Carthage)
전쟁 배경	• 이탈리아 반도 통일 후 시칠리아 진출	• 시칠리아 서부 지배, 지중해 해상권 장악
병력 구성	• 시민병 중심의 보병 레기온 • 방패(스쿠투), 단검(글라디우스), 투창(필룸)	• 용병군(리비아, 이베리아, 갈리아, 누미디아 기병) • 카르타고 시민은 주로 후방
군사적 강점	• 강력한 보병 전투력 • 신속한 군단 편성 및 훈련	• 세계 최강 해군력 • 숙련된 선원 · 해전술
해군 전력	• 초반 약세 • 직접 대규모 함대 건조 • 코르부스(Corvus)로 백병전 유도	• 숙련된 해상 기동 전술 • 충각(ram) 공격 중심 • 퀴케레메(5단 노선) 운용
핵심 전략	• 해전을 육전으로 바꿔 보병 우세 활용	• 기동성과 해전 경험으로 승리 기대
전쟁 주요 전개	• 에크노무스 해전(승리) • 아프리카 원정(일시적) • 에가디 제도 해전(결정적 승리)	• 시칠리아 수비 • 해상에서 로마 견제 • 최종적으로 해군력 상실

략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특히 로마가 해상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인 코르부스의 등장 배경에 주목한다. 해군력과 육군력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의식은 코르부스를 단순한 기술적 발명을 넘어, 전략적 적응의 산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는 로마가 자국의 군사적 강점을 활용해 낯선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고대 전쟁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20)</sup>

전쟁 발발 이전 지중해 세계는 여러 강국이 권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 카르타고는 서부 지중해의 해상로를 장악하며 상업과 해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점차 지배력을 공고히 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계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된 상업 중심의 해양 강국으로, 북아프리카 본토를 중심으로 스페인과 시칠리아 일부를 포함한 다수의 섬들에 식민지를 두고 광범위한 무역망을 형성하며 번영하였다.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해양 역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전문 선원과 다국적 용병으로 구성된 대규모 해군을 상시 유지하였다. 특히, 카르타고가 운용한 ‘퀸케레메(quinquereme)’라 불리는 5단 노선 전함은 다섯 겹의 노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대형 전투함으로, 당대 가장 발달한 해상 전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었다.<sup>21)</sup> 반면, 로마의 군사 전통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리</li> <li>• 시칠리아 최초의 속주 획득</li> <li>• 지중해 진출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배</li> <li>• 시칠리아 상실</li> <li>• 막대한 배상금 부담</li> <li>• 세력 약화, 후일 한니발 등장 배경</li> </ul>
----	--	--

20)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1-2.

21) Goldsworthy, *The Punic Wars*, pp.28-44; B. D. Hoyos, *The Carthaginians* (London: Routledge, 2010), pp.149-152.

철저히 육상 전투에 기반하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중반까지 로마는 군단 보병의 전술적 우위와 실용적인 외교·동맹 체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카르타고와 달리, 로마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해군 전력이나 관련 기반 시설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로마의 해상 활동은 대부분 연안 경비, 병력 및 물자 수송, 해적 대응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본격적인 해상 전투 경험은 전무했다.<sup>22)</sup> 따라서 카르타고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맞서 해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로마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로마는 적절한 함선은 물론, 숙련된 선원, 전문 해군 지휘관, 그리고 정교한 해상 전술조차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가 이후 해군력을 급속히 확충하고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시칠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메사나에서 비롯되었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캄파니아계 용병 집단 마메르티니는 강력한 헬레니즘 국가 시라쿠사의 통치자 히에로 2세의 포위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르타고와 로마 양측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sup>23)</sup> 카르타고는 즉각 메사나에 수비대를 파견하며 동부 시칠리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고, 로마는 해외 개입에 대한 내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마메르티니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곧 카르타고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가 되었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sup>24)</sup>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는

22) W. V. Harris, "Rome at Sea: the Beginnings of Roman Naval Power", *Greece & Rome* 64(2017), p.15.

23) Polybius, *Histories*, 1.10-11; Hoyos, *The Carthaginians*, p.181.

24) Polybius, *Histories*, 1.10-11; C. Steinby,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단순히 시칠리아의 육상 전장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해상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양국은 보급로 확보와 섬 내 입지 강화를 위해 해상 통제권 장악이 필수적이었고, 이로 인해 해군력이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곧바로 카르타고 해군의 압도적인 우위가 드러났는데, 숙련된 선원, 견고한 선박, 탁월한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 등에서 신생 로마 해군을 크게 능가했다.<sup>25)</sup> 카르타고 해군은 기동력을 활용한 충돌 전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적함을 직접 탑승하지 않고 충격과 파괴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전술은 철저한 선원 훈련과 규율에 기반한 것으로, 숙련도 높은 해양 전문성이 핵심이었다.<sup>26)</sup> 이에 반해, 로마는 기존 해상 전술로는 카르타고에 맞서기 어렵다는 점을 빠르게 인식하였다. 카르타고의 해군 전술을 모방하는 대신, 로마는 자신들의 전통적 강점인 보병 중심의 근접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전술적 혁신을 모색했다.<sup>27)</sup>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로마 군사사에서 자국의 강점을 새로운 전쟁 환경에 맞게 적응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로마는 먼저 카르타고 전함을 포획해 설계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대규모 함대를 건조했다. 동시

---

*at Sea* (South Yorkshire: Pen & Sword Maritime, 2014), p.62;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35-38.

25) B. Rankov, "Naval Tactics in the First Punic War", in *The Sea in History: The Ancient World*, ed. J. B. Hattendorf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98), pp.341-345;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70; Steinby,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at Sea*, p.61.

26) L. Rawling, "The Carthaginian Navy: Questions and Assuptions", *New Perspectives on Ancient Warfare*, eds G. G. Fagan and M. Trundle (Brill: Hotei Publishing, 2010), p.280; L. Casson, *Ships and Seamanhip in the Ancient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214-216.

27) Steinby,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at Sea*, p.76;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p.58.

에, 해전에서 보병의 전투력을 활용하기 위해 적 함선에 탑승하여 백병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독특한 장치, 즉 ‘코르부스’를 개발하였다.<sup>28)</sup>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발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로마가 기존의 군사 자산을 전략적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사례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로마인들이 시칠리아 해안에 접근해 그나이우스(Gnaeus)에게 닥친 참패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조치는 육군을 지휘하던 가이우스 둘리우스(Gaius Dullius)를 호출하는 것이었다. 둘리우스가 도착할 때까지 로마 병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적 함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해전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로마 해군은 함선의 구조가 미흡하고 조종 능력 또한 열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상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특수 장치, 훗날 ‘코르부스’로 불리게 되는 구조물을 고안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함선의 선수(벃머리)에는 높이 약 24피트(약 7.3미터), 지름 네 손바닥(약 30센티미터) 크기의 둥근 기둥이 세워졌고, 그 꼭대기에는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둥에는 가로판을 못질해 만든 너비 4피트(약 1.2미터), 길이 36피트(약 11미터)의 승선용 다리가 회전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다. 이 다리는 중심 기둥을 통과하는 타원형 구멍을 갖고 있어 약 12피트(약 3.65미터) 지점에서 기둥을 감싸도록 설계되었으며, 양옆에는 무릎 높이의 목재 난간이 설치되어 병사들의 이동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다리의 맨 끝에는 방앗공이 모양의 철제 돌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 돌기는 아래는 뾰족하게, 위쪽에는 맞줄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었다. 전체 구

28) Polybius, *Histories*, 1.20-21.

조는 곡식을 빵을 기계로 연상케 하며, 전투 시에는 이 고리에 묶인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코르부스를 들어 올린 뒤, 적함의 갑판 위로 내려쳐 고정시켰다. 함선이 정면이나 측면으로 충돌했을 때, 이 다리를 회전시켜 적함과 연결 통로로 활용했다. 코르부스가 적함에 고정되어 두 배가 서로 맞물리면, 측면에서 충돌한 경우 병사들은 어느 방향이든 건너뛰었고, 정면으로 마주한 경우에는 병사들이 두 줄로 정렬해 코르부스를 건너 적함으로 진입했다. 선두의 두 병사는 방패로 전면을 방어했고, 뒤따르는 병사들은 방패의 테두리를 난간 위에 올려놓아 측면을 방어하며 진격했다. 이와 같은 준비를 마친 로마 해군은, 해전에서 승산이 있을 순간을 기다리며 전투의 기회를 엿보았다.<sup>29)</sup>

코르부스는 끝에 무거운 철제 못이 달린 탑승용 돌격 다리로, 로마 해군이 카르타고의 해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전술적 혁신 장치였다. 전투 중 코르부스를 적함 위로 내리꽂으면, 못이 상대 함선의 갑판에 깊숙이 박혀 양 함선을 고정시켰다. 이를 통해 로마 병사들은 다리를 건너 적함에 탑승, 해상 전투를 근접 보병전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카르타고가 보유한 뛰어난 해양 전술과 선박 운용 기술의 강점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로마의 주된 군사력인 보병 중심의 전투 방식을 바다 위에서도 구현하고자 한 시도였으며, 이는 기존의 전투 규칙을 전복하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코르부스의 도입은 로마가 낯선 해양 환경에서도 자국의 전투 스타일을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의지와 적응력을 분명히 보여준다.<sup>30)</sup>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단순한 전술 차원을 넘

29) Polybius, *Histories*, 1.22.

30)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pp.106-107; Lazenby, *First Punic War*, pp.68-70.

어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기원전 260년 밀라이 해전에서 코르부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로마 해군이 카르타고 함대를 격파하고 첫 해상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sup>31)</sup>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코르부스의 전술적 가능성과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 로마인의 자신감을 비약적으로 고양시켰고,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정치적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다.<sup>32)</sup>

그러나 코르부스의 사용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작용도 존재했다. 이 장치는 선체의 상부에 상당한 무게를 더함으로써 함선의 무게 중심을 높이고, 그 결과 안정성과 기동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특히 거친 바다나 악천후에서는 선박의 복원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기원전 255년, 시칠리아 해안 근처에서 폭풍으로 인해 로마 함대가 대규모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는 코르부스를 장착한 함선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sup>33)</sup> 이러한 사건은 코르부스의 장기적 운용 가능성과 전략적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점차 코르부스를 실전에서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포기的问题가 아니라 전략적 진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실제로 코르부스가 사라진 이후의 로마 함대는 보다 정교한 해상 기동과 전통적인 해전 전술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로마가 기계 장치에 의존하던 초기의 한계를 넘어서 점진적으로 진정한 해양

31) Polybius, *Histories*, 1.20; Steinby,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at Sea*, p.198.

32)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243-244.

33)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180;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253.

강국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코르부스는 로마 해군이 해상 경험이 부족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보병 중심 전술을 해전으로 옮기기 위한 중간 단계적 기술로 기능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군 전통의 정착을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다.<sup>34)</sup> 결국 로마는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해상 전투 능력의 향상과 해군 전통의 축적을 통해서만 지중해 패권을 향한 야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전략적 배경은 ‘혁신, 필요성, 적응’이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해상 전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던 로마는 코르부스로 대표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을 통해 육상 전투에 강한 세력이 해상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대응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의 출발점이었다.<sup>35)</sup> 하지만 동시에, 코르부스의 구조적 한계와 해상 전쟁이라는 환경 자체의 복잡성과 가혹함은 로마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수반된 난제와 시행착오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코르부스의 도입은 단순한 군사 기술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로마 정치·사회 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략적 선택이었다. 공화정 로마의 정치 체계와 군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은 이러한 결정의 형성과 실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원로원의 신중한 토론, 민회의 여론과 영향력, 그리고 야망을 품은 집정관들의 지도력은 로마가 전쟁을 수행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코르부스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기술적 혁신과 정치적 역량이 결합된 복합적 산물이었다. 결국 코르부스는 로마 군사력의 확장과

34) Rankov, “Naval Tactics”, p.349.

35) Polybius, *Histories*, 1.23; L. Rawling, “The Carthaginian Navy: Questions and Assuptions,” p.280; Lazenby, *First Punic War*, p.95.

전환을 가능케 한 ‘적응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로마가 보여준 전략적 유연성과 회복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sup>36)</sup>

### Ⅲ. 코르부스의 기원과 설계

제1차 포에니 전쟁 중 코르부스의 발명과 실전 배치는 고대 해상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장에서는 이 코르부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것이 탄생하게 된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작전적 설계 특징, 그리고 실제 운용에서 드러난 한계를 검토한다. 코르부스를 단순한 기술 장비가 아니라 전략적·전술적 혁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전쟁의 양상과 로마 해군의 발전 궤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코르부스의 도입은 전쟁 초기 로마와 카르타고 간 해군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카르타고는 오랜 해양 전통을 바탕으로 방대한 함대와 숙련된 선원, 정교한 해상 전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은 지중해 서부에서의 상업적·군사적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것으로, 해상에서의 카르타고 우위를 공고히 했다.<sup>37)</sup> 이에 반해, 로마는 해상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신생 해군 세력이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육상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해양 분야에서는 기반 시설, 전문 인력, 전술적 경험 모두에서 현저히 뒤쳐진 상황이었다.<sup>38)</sup> 이러한

36) Polybius, *Histories*, 1.25-26.

37) Polybius, *Histories*, 1.20; Lancel, *Carthage: A History*, pp.125-131.

38) Polybius, *Histories*, 1.20; F. E. Adcock, *The Roman Art Of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40), p. 32.

전력 격차를 극복하고자 했던 로마의 전략적 대응은, 자국이 지닌 가장 강력한 자산인 규율 있는 보병 전력에 집중되었다. 충각 공격, 기동 회피, 기습 승선 등 고난도의 해상 전술을 습득하기보다는, 로마는 오히려 해상 전투의 조건을 육상 전투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함에 직접 승선해 백병전을 벌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고, 이 전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르부스가 고안되었다.<sup>39)</sup> 고대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코르부스는 기원전 260년 밀라이 해전에서 집정관 가이우스 둘리우스에 의해 최초로 운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장치는 로마 보병의 근접 전투 능력을 해상 전투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도구였으며, 로마의 전통적 강점을 새로운 작전 환경에 맞춰 창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sup>40)</sup>

이 장치는 폭 약 1.2미터, 길이 최대 11미터에 이르는 긴 판자로 구성되었으며, 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들어올릴 수 있도록 수직 기둥에 부착되어 있었다. 판자의 끝에는 적함 갑판에 박히도록 설계된 금속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 배들 사이를 강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sup>41)</sup> 운용 측면에서 코르부스는 일종의 이동식 연결 다리 역할을 했다. 로마 군함이 카르타고 함선 옆으로 접근하면 코르부스를 내려 양 함선을 고정시켰고, 로마 병사들은 이 다리를 건너 적함 갑판 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해상 기동 없이도 승선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조밀한 대형을 유지한 채 백병전에 능한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에게 유리한 전투 환경을 제공했다. 말하자면, 코르부스는 해전을 수상 육전으로 전환시키는 도구였던 셈이다. 이 장치는 로마의

39)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239.

40) Polybius, *Histories*, 1.22.

41)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460;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239.

전략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 군사 기술의 적응력을 잘 보여준다. 해상 기동성과 항해 경험이 부족했던 로마는 코르부스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효과적으로 상쇄했고, 결과적으로 카르타고의 뛰어난 해상술과 전술적 유연성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코르부스는 단순한 전투 장비 그 이상으로, 낯선 전장 환경에서도 로마식 보병 전술을 구현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었다.<sup>42)</sup>

그러나 코르부스는 설계적 결함과 운용상의 제약이라는 중대한 한계를 동반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문제는 선박의 안정성과 기동성 저하였다. 갑판 상부에 무거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무게 중심이 상승했고, 이는 로마 퀸케레메의 전복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sup>43)</sup> 기원전 255년 카마리나 해역에서 발생한 로마 함대의 침몰 사건도 코르부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고대 사료와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sup>44)</sup> 기술적 측면에서도 코르부스는 조작이 복잡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장치였다. 장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는 선원 간의 정확한 협력이 필요했으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배의 위치와 시점이 정밀하게 맞아야 했다.<sup>45)</sup> 특히 기상이 불안정하거나 파도가 높을 경우 코르부스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전술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일단 적함과 연결되면 양측 선박은 기동성을 상실하고 외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다.<sup>4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르부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술 도구였다. 특히 로마 해군이 아직 숙련

42)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121; Goldsworthy, *The Punic Wars*, p.106-107;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69-71.

43)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p.460-461.

44) Polybius, *Histories*, 1.37; B. D. Hoyos, *Unplanned Wars* (Walter de Gruyter: Berlin, 1998), p.109.

45)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192.

46) Goldsworthy, *The Punic Wars*, p.118.

되지 못했던 전쟁 초기에는 그 효용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sup>47)</sup>

기원전 260년 밀라이 해전에서 코르부스는 수많은 카르타고 함선을 포획하거나 침몰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기원전 256년 에크노무스 해전과 같은 대규모 해전에서도 로마의 승리를 뒷받침했다.<sup>48)</sup>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선원들의 항해 기술과 전술 역량이 점차 향상되자 코르부스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했다. 이후의 해전에서는 코르부스를 생략하고, 항해술과 기동력을 중시하는 보다 정교한 해상 전술이 선호되었다.<sup>49)</sup> 이러한 맥락에서 코르부스는 일시적인 전환기적 기술로 기능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었다. 코르부스의 기원과 설계는 더 넓은 군사 기술 혁신의 맥락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 장치는 전쟁이라는 필요가 기술적 응용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하나의 사회가 자국의 강점을 새로운 전장에서 어떻게 전환하고 응용하는지를 드러낸다. 제1차 포에니 전쟁 중 로마가 기계 장치를 통해 보병 전술을 해전에 적용한 것은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었다.<sup>50)</sup> 하지만 기술 혁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코르부스의 장점은 동시에 안정성 저하, 기후 취약성, 전술 유연성의 부족 등 여러 단점과 맞물려 있었다.<sup>51)</sup> 이는 기술과 전략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하나의 기술이 특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47)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94.

48) Lazenby, *First Punic War*, p.122.

49)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180;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253.

50) Philip de Souza, "Naval Battles and Sieges", in Philip Sabin, Hans Van Wees, Michael Whitby (Eds.),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Warfare Volume I: Greece, the Hellenistic world and the rise of Rom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437.

51)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462.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기술은 본질적으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코르부스는 카르타고의 해상 우위에 맞서기 위해 로마가 긴급히 도입한 기발한 발명이었다. 보병 중심 전술의 강점을 해상 전투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이 장치는 전쟁 초기 로마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로마가 해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sup>52)</sup>

#### IV. 코르부스의 운용과 전술적 영향

제1차 포에니 전쟁 중 코르부스의 실전 배치는 로마 해군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이뤘다. 이 장에서는 주요 해전에서 코르부스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 장비가 전투 결과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로마 해군 교리 형성에 끼친 역할을 분석한다. 나아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운용상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 그리고 로마의 해상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변화한 코르부스의 전략적 위치 역시 함께 고찰한다. 코르부스의 첫 본격적인 실전 투입은 기원전 260년 밀라이 해전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투는 로마가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으며, 코르부스의 효과가 극적으로 입증된 사례로 평가된다.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가이우스 돌리우스는 해군 지휘관이 겪은 재난 소식을 접하자 즉시 대응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이끌던 군단을 군단장(군사 호민관)들에게 맡기고, 직접 해군이 집결한 기지로 향했다. 그곳에

52) Goldsworthy, *The Punic Wars*, p.120.

서 카르타고군이 밀라이 인근을 약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전 함대를 이끌고 출항했다. 카르타고인들은 로마 함대가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환호하며, 130척의 선단을 급히 출동시켰다. 이는 로마 해군의 미숙한 항해술과 전술 능력을 경멸했기 때문이었다. 카르타고 함선들은 전투 대형을 제대로 갖추는 수고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눈앞에 놓인 전리품을 집으려는 듯 선수(뱃머리)를 곧장 적을 향해 돌리며 무모하게 돌진했다. 당시 카르타고 함대를 지휘한 인물은 이전에 아그리젠툼에서 병력을 몰래 철수시킨 경력이 있는 한니발이었으며, 그는 피루스 왕이 사용했던 7단 노선 깎리선에 탑승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함선들이 로마 함대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로마 군함 선수 위에 높이 세워진 낮선 장치를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코르부스였다. 이 생소한 장치를 처음 본 카르타고인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로마 해군을 얕잡아보며 돌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접근하자마자 선두의 카르타고 함선들은 코르부스에 단단히 걸렸고, 로마 병사들이 신속히 적함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였다. 전투는 순식간에 선상에서 벌어지는 육상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준비되지 않았던 카르타고 승무원들은 당황하여 다수 전사하거나 항복하였다. 그 결과, 카르타고는 선두에서 돌격한 30척의 함선과 선원 전원을 잃게 되었다. 그중에는 한니발의 기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는 뜻밖의 행운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작은 보트를 타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 후속하던 카르타고 함선들은 처음에는 돌진을 계속할 태세였으나, 앞선 함선들이 처참하게 전멸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로를 바꾸어 코르부스의 포획을 회피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동성과 속도를 믿고 로마 함대의 측면이나 후방을 노리는 우회 기동을 시도했지만, 코르부스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모든 방향에서 떨

어질 수 있었고, 그 어떤 함선도 근접전을 시도할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카르타고 함대는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당황하여 전열을 무너뜨리고 퇴각했으며, 이 전투에서 총 50척의 함선을 잃었다.<sup>53)</sup>

로마는 이 해전에서 코르부스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해상 기동전 대신 백병전에 능한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숙련된 항해술과 충각 전술을 보유했던 카르타고 함대를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전투 이전까지 로마 해군은 실질적인 해상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했으며, 카르타고 해군은 숙련된 항해술과 세련된 전술 운용 능력에서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 도입된 코르부스는 해상 전투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 로마 함선은 이 탑재식 접이식 다리를 활용하여 적함과의 거리를 극복하고, 전투를 직접적인 백병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코르부스가 적함에 박히면, 로마 병사들은 이를 통해 신속히 적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카르타고 전함의 기동성과 충각 중심 전술은 무력화되었다.<sup>54)</sup> 코르부스를 통해 적함에 올라탄 로마 군단의 중무장 보병들은 함상에서 압도적인 근접 전투 능력을 발휘하였고, 백병전에 익숙지 않은 카르타고 승무원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전술적 전환은 로마의 결정적 승리를 견인하였으며, 다수의 카르타고 함선이 나포되거나 격침되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성과를 넘어 로마 해군에 커다란 사기적 상승 효과를 안겨주었고, 해상에서의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55)</sup> 밀라이 해전의 성공

53) Polybius, *Histories* 1.22.

54) Philip de Souza, "Naval Battles and Sieges," p.439;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121.

은 단순한 일회성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코르부스는 이후 전투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기원전 256년 에크노무스 해전에서는 결정적인 전술 장비로 다시 한번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코르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카르타고 함선을 포획하고 직접 탑승하여 격렬한 근접 전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로마가 북아프리카 본토를 침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코르부스는 로마 해군이 항해술과 해상 전투 경험 면에서 부족했던 초기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전술적 혁신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다.<sup>56)</sup>

그러나 코르부스는 전술적으로 일정한 이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장비의 무게와 복잡한 구조는 선박 운항에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로마 함선은 민첩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 등 환경적 위협에도 더 쉽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원전 255년 바그라다스(Bagradas) 강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난 사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폭풍우로 인해 로마 함대의 상당수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다.<sup>57)</sup> 고대 문헌들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코르부스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장비의 추가적인 중량과 구조가 악천후에서 선박의 복원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다.<sup>58)</sup>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코

55) Polybius, *Histories*, 1.23; Meijer,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pp.90-91.

56)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p.459-460.

57) Polybius, *Histories*, 1.37; J. H. Thiel, *A History of Roman sea-power before the Second Punic War*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1954), p.274.

58) Tarn, "Fleets of The First Punic War," p.149;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p.443-444.

르부스의 작전상 한계는 점차 뚜렷해졌다. 일단 적함에 연결된 후에는 그 구조상 신속한 철수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고, 기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술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더욱이 코르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로마 해군이 보다 정교한 해상 전술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함장들과 승무원들이 복잡한 해상 기동보다는 백병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59)</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로마 해군의 지휘관들은 전략적 방향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갔다. 전쟁 말기에 이르러 코르부스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로마 선원들은 점차 전통적인 해상 전술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를 축적해 나갔다. 코르부스의 점진적 폐기는 초기 로마 해군이 기계장치를 통해 보병 전술을 해상에 이식하려 했던 실용적 접근에서, 보다 정교한 항해술과 전술 중심의 해군력으로 전환해 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로마가 지중해의 해상 패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 V. 코르부스의 전략적 결과와 유산

코르부스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당시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로마 해군력과 군사 발전의 향방을 결정한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코르부스가 로마의 전략적 태세에 끼친 영향과 로마 해군 발전에 남긴 성과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군사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이 장비가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살펴본다. 전략적 측면에서 코르부스의 도입은 로마가 직면

59) Steinby,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at Sea*, p.103-104.

한 최대 약점 중 하나였던 해상 경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sup>60)</sup> 제1차 포에니 전쟁 이전까지 로마는 주로 육상 중심의 강대국으로서 해상 전통이 거의 없었으나, 반면 카르타고는 서부 지중해 해양 패권을 쥔 강력한 해양 국가였다. 코르부스는 로마가 해군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숙련된 해상 전투 경험 없이도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해전을 보병 중심의 근접 전투 양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sup>61)</sup> 이 같은 변화 덕분에 로마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신감을 갖고 카르타고의 해상 지배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는 전쟁을 장기화시키며 카르타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르부스는 로마 초기 해군 승리의 기반이 되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한편, 지중해 전역에서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성공은 로마가 해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쟁에 대한 정치적·대중적 지지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만약 코르부스가 없었다면, 로마의 해상 진출은 훨씬 더 더딜 뿐 아니라 실패를 거듭했을 가능성이 크다.<sup>62)</sup>

그러나 코르부스는 전략적 측면에서 단점도 함께 드러냈다. 특히 작전상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선박의 안정성과 기동성 저하—는 악천후나 복잡한 해상 기동 시 로마 함대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 코르부스를 장착한 함선들이 폭풍우 속에서 전복되거나 무기력화된 사례는, 하나의 기술적 해결책이 또 다른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sup>63)</sup> 이러한 손실

60) Goldsworthy, *The Fall of Carthage*, p.106.

61)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p. 459-460.

62) Goldsworthy, *The Punic Wars*, p.126.

63) Polybius, *Histories*, 1.37; Thiel,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p.180; Lazenby, *The First Punic War*, pp.128-129.

은 로마 해군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전쟁의 장기화를 초래했고, 함대 재건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르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로마 해군 발전을 저해했을 여지도 있다. 지휘관과 선원들이 탑승 전투에 집중한 나머지, 카르타고가 이미 숙달한 충각 전술, 기동 전술, 함대 협동 작전 등 전통적인 해상 기술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르부스에 대한 전략적 의존은 군사 혁신이 흔히 겪는 문제—단기적 편의성과 장기적 역량 강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반영한다. 결국 로마가 코르부스를 포기한 것은 진정한 해군 역량을 갖추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로마 해상 전력이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준다.<sup>64)</sup>

코르부스의 유산은 단순히 전쟁 중 일시적인 성과를 넘어서, 로마 군제의 뛰어난 적응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 장치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전통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과감히 도입한 로마의 혁신적 태도를 대변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1차 포에니 전쟁뿐만 아니라, 로마의 광범위한 팽창 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전투 전통과 기술을 흡수하고 전략적 필요에 맞춰 재구성하는 능력을 뒷받침했다.<sup>65)</sup>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코르부스는 기술과 군사 효율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이는 기술 혁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 군사 교리와 조화, 그리고 필연적인 대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로마의 코르부스 경험은 기술이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적응과 보완을 요구하는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sup>66)</sup> 또한, 제1차 포에니 전쟁 직후 코르부스의 존재

64) N. Morley, "Innovation in Roman Warfare", in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Warfare*, Vol. I (2007), p. 222.

65) Philip de Souza, "Naval Battles and Sieges", pp. 437-439.

는 로마 해군의 선박 설계와 건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르부스 장착 여부에 따른 선체 형상, 안정성, 선원 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실험은 이후 로마 해군이 지중해 해상 패권을 구축하고 전문 해군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sup>67)</sup> 결국 코르부스는 로마가 비대칭적인 도전에 맞서 창의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상징이자, 지중해 해상 전쟁의 전환점이자 로마 해양 강국으로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장치의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로마 군사사에 깊이 각인되어, 적응력과 혁신, 그리고 전략적 통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sup>68)</sup>

## VI. 결 론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코르부스의 활용을 평가하는 일은 기술 혁신이 군사 전략, 작전 효율성, 장기적인 전력 발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코르부스는 절대적인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닌 과도기적 기술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기적으로 로마의 해상 열세를 극복하는 데 기여

66) M. L. Van Creveld,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pp.28-29; Morley, "Innovation in Roman Warfare", p.224.

67)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p.193-194; Rankov,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p.462.

68) Harris, *War and Imperialism in Republican Rome*, p.174; N. Rosenstein, *Rome and the Mediterranean 264-146 BC*,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p.64.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코르부스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로마 해군이 부상하던 결정적인 시기에 전력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있다. 해군 작전 경험과 선박 운용 능력이 부족했던 로마는, 코르부스를 통해 자국의 강점인 보병 전술을 해전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 적응은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의 전력 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존의 해전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초기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서지중해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코르부스와 관련된 제약과 위험 요소는 군사 혁신이 지니는 근본적인 교훈을 일깨워준다. 즉, 기술적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르부스의 설계는 함선의 불안정성과 기동성의 제한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적 조건이나 적의 전술에 의해 쉽게 악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한 손실은 로마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기반 기술이나 작전 교리를 병행해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코르부스의 이중적인 성격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모든 군대가 직면하게 되는 보다 보편적인 긴장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혁신은 단기적인 작전 우위를 제공하고 기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혁신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적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로마의 경험은 효과적인 군사 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역량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로마가 코르부스를 폐기하게 된 과정은 제도적 학습과 조직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해군 선원들이 점차 숙련도를 높여감에 따라, 로마는 코르부스를 중심으로 한 백병전 전술에서 벗어나 기동성과 협동, 해양 운용 능력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갔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지중해 패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코르부스의 사례는 군사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중요한 주제를 요약한다. 초기의 기술적 보조 수단은 장기적인 숙련과 전문성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며, 그 전제 조건은 조직이 변화와 개선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코르부스는 군사 혁신이 전쟁의 양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정체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마는 육상 보병 전술을 해상 전투에 통합함으로써, 전쟁 영역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기존 강점을 효과적으로 해전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혼성 전투 방식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한 로마의 유연한 적응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르부스는 단순한 전술 장비를 넘어, 비대칭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발휘된 로마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기술적 표현이었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단지 고대 해전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 군사 체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의 군대 역시 다음과 같은 유사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단일 솔루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는 전략, 그리고 핵심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코르부스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 의

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군사 혁신이란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상기시킨다. 이는 끊임없는 평가와 적응, 그리고 전략적 통찰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차 사료

Annaeus Florus, *Epitome of Roman History*

Aurelius Victor, *De Viris Illustribus*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Orosius, *Historiae Adversum Paganos*

Polybius, *Histories*

### 2차 사료

Adcock, F. E., *The Roman Art Of War*, Havard Universuty Press, 1940.

Casson, L.,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De Sanctis, C., *L'et Delle Guerre Puniche*, Milan: Milano-Torino, 1916.

De Saint-Denis, Emille. “Une Machine De Guerre Maritime: Le Corbeau De Duilius,” *Latomus* 5, 1946.

Goldsworthy, A., *The Fall of Carthage: The Punic Wars 265-146 BC*, London: Cassell, 2003.

Harris, W. V., “Rome at Sea: the Beginnings of Roman Naval Power”, *Greece & Rome* 64, 2017.

Hoyos, B. D., *Unplanned Wars*,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Hoyos, B. D., *The Carthaginians*, London: Routledge, 2010.

Hoyos, B. D., *Mastering the West: Rome and Carthage at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Hoyos, B. D., *A Companion to the Punic War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15.

Lancel, S., *Carthage: A Histor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5.

- Lazenby, J. F., *The First Punic War: A Military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Meijer, F., *A History of Seafaring in the Classical World*, London: Routledge, 2014.
- Miles, R., *Carthage Must Be Destroyed: The Rise and Fall of an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London, New York: Allen Lane, 2010.
- Morley, N., “Innovation in Roman Warfare”, in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Warfare*, Vol. I, 2007.
- Philip de Souza, “Naval Battles and Sieges”, in Philip Sabin, Hans Van Wees, Michael Whitby (Eds.), *Cambridge History of Greek and Roman Warfare Volume I: Greece, the Hellenistic world and the rise of Rom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Rankov, B., “Naval Tactics in the First Punic War”, in *The Sea in History: The Ancient World*, ed. J. B. Hattendorf,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98.
- Rankov, B., “Naval Warfare and the Corvus”, in J. P. Oleson,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Rawling, L., “The Carthaginian Navy: Questions and Assuptions”, *New Perspectives on Ancient Warfare*, eds G. G. Fagan and M. Trundle, Brill: Hotei Publishing, 2010.
- Rorres, C and Harris, H. G., “A Formidable War Machin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rchimedes’ Iron Hand,” *Symposium on Extraordinary Machines and Structures in Antiquity*, Greece, Olympia, 2013.
- Rosenstein, N., *Rome and the Mediterranean 264-146 BC*,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 Steinby, C., *Rome versus Carthage: The War at Sea*, South Yorkshire: Pen & Sword Maritime, 2014.

Tarn, W. W., "Fleets of The First Punic War,"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8, 1907.

Thiel, J. H., *Studies on the History of Roman Sea-power in Republican Time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1946.

Thiel, J. H., *A History of Roman sea-power before the Second Punic War*,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1954.

Van Creveld, M. L.,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Wallinga, H. T., *The Boarding-bridge of the Romans: Its Construction and Its Function in the Naval Tactics of the First Punic War*, Groningen: J. B. Wolters, 1956.

Warmington, B. H., *Carthage*, London: Robert Hale, 1960.

<Abstract>

## Strategic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rvus in the First Punic War

Kim, Sang-Yeup

(Dankook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The use of the corvus during the First Punic War serves as a significant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nteracts with military strategy, operational efficiency, and long-term force development. The corvus was neither a complete success nor an outright failure; rather, it functioned as a transitional technology. In the short term, it helped Rome overcome its naval inferiority, but it also exposed new strategic vulnerabilities, such as reduced ship maneuverability. Nevertheless, the corvus acted as a force multiplier at a critical moment in the rise of the Roman navy, enabling the Romans to leverage their strength in infantry tactics even at sea. This tactical adaptation played a key role in narrowing the power gap with Carthage—a dominant naval force—and securing early Roman victories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hrough conventional naval engagements.

However, the corvus design compromised ship stability and agility, making Roman vessel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emy tactics. The resulting losses tested Rome's resilience and institutional adaptability, illustrating that technological solutions often generate new challenges alongside potential advantages. The corvus also highlights that overreliance on a single innovation without balanced development of foundational capabilities can hinder long-term progress. While innovation can offer short-term operational advantages, its sustainability depends on organizational flexibility, learning capacity, and strategic foresight.

Rome initially employed the corvus actively, but as its sailors became more experienced, it eventually phased out the device in favor of traditional naval

tactics focused on maneuverability and coordination. This shift underscores that lasting strategic superiority comes not from temporary tactical tools but from cultivating fundamental maritime operational capabilities. Thus, the corvus was not merely a piece of equipment but a reflection of Rome's evolving mode of warfare and military identity. By integrating land-based tactics into naval battles, Rome blurred conventional boundaries between warfighting domains and demonstrated its capacity to adapt flexibly to diverse combat environments. In this sense, the corvus symbolized Roman creativity and resilience in the face of asymmetric challenges.

The insights drawn from this case extend beyond ancient military history and remain relevant to modern armed forces. Today's militaries face similar challenges: how to effectively integrate new technologies, avoid overdependence on single solutions, and balance core competencies with innovation. The corvus case illustrates that military innovation is not a fixed outcome but an ongoing, iterative process of evaluation and adaptation. Without strategic thinking and continuous reassessm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may ultimately weaken rather than strengthen military power.

Keywords : Rome(로마), Carthage(카르타고), Punic War(포에니 전쟁), Corvus(코르부스), Mediterranean Sea(지중해), Mylae(밀라이), Ecnomos(에크노모스)

원고투고일 : 2025. 7. 11. 심사완료일 : 2025. 8. 22. 게재확정일 : 2025. 9. 8.